

일본에서의 한국어교육과 언어문화

-Korean Language Education and Language Culture in Japan-

柳尙熙*

1. 이문화(異文化) 이해 교육

가) 자기민족중심주의를 없애는 교육

이 세상 어느 문화나 민족, 국가도 자기네들이 세계에서 제일이고 최고라고 믿으며 자랑하는 감정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것에는 국가주의, 자기민족우월주의, 자기문화중심주의가 있다. 특히 일본은 무엇이든지 「日本一」(닛뽕이찌), 「日本晴」(닛뽕바레)라는 말을 잘 쓴다. 무엇이든지 일본이 최고라는 뜻이다. 이렇게 자기민족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자기민족중심주의(ethnocentrism)가 많다. 자기의 문화는 절대로 좋다고 보는 경향에서 자기와 다른 문화는 좋지 않고 뒤떨어졌다고 보는 극단의 편견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이문화 이해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어학교육에서 이런 점을 먼저 주지시키면서 교육하여야 한다.

* 日本二松學舎大學.

동물의 개체나 집단은 타개체 또는 타집단이 침입할 때에 자기 점유 지역을 지키려는 경우가 있다. 또 타개체의 점유 지역에 들어가면 침착성을 잃어버리거나 공격을 받는 경우가 있다. 그 점유 지역의 소유자와 만나게 되면 도피 행동도 한다. 이러한 점유 지역이나 세력권의 행동은 우리 인간들도 행하고 있다. 더구나 그 세력권은 동물보다 더 복잡하다. 동물들은 보통 일정 기간에 한 지역만 점유 지역을 가지지만 우리 인간들은 가정과 직장 같은 복수의 점유 지역을 가질 수가 있다. 이인종(異人種)과의 차별이 이러한 데서 생긴다.

재일본 동포들이 70여만 명 있다. 이들은 지금까지는 많은 차별을 받아왔다. 그리고 과거에 일본이 우리 한국을 식민지화했다는 이유로 일본인들이 내심으로 재일본 동포를 낮추어 보는 경우가 있다.

나) 복은 안으로, 귀신은 밖으로 (福は内 鬼は外 in group, out group)

일본에는 「복은 안으로, 귀신은 밖으로」라는 말이 있다. 「안과 밖(内と外)」은 사회학이나 문화인류학에서는 가타가나(片仮名)로 표기를 한다. 일본 문화에 있어서 자아를 기준으로 내면과 외면, 가족이나 소속집단을 기준으로 한 내집단(in group)과 외집단(out group)으로 구분한다. 이와 같은 일본인의 의식구조를 살펴보면 부부, 자식, 형제의 친밀한 가족을 「우제(안·内)」, 자기와 전혀 관계가 없는 타인을 「소도(이웃)」, 학교나 직장, 가깝게 사는 이웃을 「우제」와 「이웃」의 중간으로 보며, 「외국인」은 「소도(外)」로 보고 일상의 대인관계로 삼고 있다. 이렇게 일본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이문화 이해 교육으로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에 한국문화를 병행해서 가르쳐야 한다. 일본인은 유럽이나 선진 문화를 동경하기도 하고 열등감을 갖는 반면, 인근 아세아의 발전도상국의 문화에 대해서는 경멸의 식과 우월감을 갖는 경향이 많다.

다) 이문화 이해 교육의 기본 방침

이문화 이해 교육의 기본 방침은 일방적 이해로부터 상호간의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문화 이해 교육은 자문화와 상대의 이문화에 대해서 지식이나 정보를 넓혀야 한다.

문화간의 상호 이해를 깊게 하려면

- ① 인지적국면(認知的局面)을 더하고 (언어의 문제)
- ② 감정적국면과 (정신문화의 다름에 대하여 관대함) (공감력을 육성)
- ③ 행동적국면이 필요하다. (문화간의 행동양식과 기호적 의미를 문제를 이해)

한국어 교육에 있어서 이러한 이문화 상호 이해가 교육 훈련 되어야 한다. 이러한 교육에는 교재, 지도자, 시간, 장소 등이 필요하다. 방법으로 몇 가지를 말하자면

- ① 사실중심교육이 필요하다.
(현지 한국의 문화에 관한 사실을 강의, 토론, 사진, 비디오, 문헌 등을 사용하여 가르치는 방법)
- ② 한국문화의 입장에서 설명하는 방법
- ③ 문화의식을 높이며 문화의 차이와 서로 다른 점을 이해시키는 방법
- ④ 인식과 행동수정
- ⑤ 경험학습 (직접 한국에 참가시켜 이문화 체험을 시키는 방법)

라) 일본에 있어서 한국어 교육의 개선해야 할 사항

- ① 수신능력보다 발신능력의 양성강화

듣고 읽기보다 한국어로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과 적극적인 태도의 개발

② 음성 중시의 한국어 교육이 절실하다.

언어는 인간의 음성이다. 문자는 음성언어를 기록하는 보조수단이라는 사실의 재인식이 필요하다.

③ 문화 용어 등 문화에서의 언어 교육이 필요하다.

문화 이해 교육

문화간의 공통점과 상호점을 비교시키며 교육해야 한다.

문화란 학습에 의해서 얻어지며 집단에 의해서 공유되며 세대를 넘어서 계승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세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하겠다.

2. 이질성과 동질성의 문화

가) 오신코(お新香)와 침채(沈菜)

일본은 우리들이 먹는 김치 대신 「오신코」라는 것을 상용 음식으로 먹는다. 그 「오신코」는 배추나 무를 소금으로 절여서 간이 배인 후 씻어서 먹는다. 우리 「김치」와 다를 바는 없다. 우리 「김치」는 그 과정으로부터 양념(藥念=調味料)을 넣어서 발효(醱酵)시켜서 먹는 음식이다. 기나긴 겨울을 발효된 김치로 반찬하여 식생활을 한다.

이와 같이 원료는 같으나 만들어 먹는 방법이 다를 뿐이다. 일본은 야쿠미(藥味)라고 하고 우리는 양념(藥念)이라고 하는 조미료가 되는 글씨도 비슷하다. 우리는 「양념」을 많이 넣어서 발효시켜 먹고 일본은 「야쿠미」를 넣지 않고 사라다 야채처럼 먹는 것이 「침채」와 「오신코」가 다르다.

나) 낫토(納豆)와 청국장(靑麴醬)

우리 한국인의 음식에 「청국장」이라는 음식이 있다. 콩을 발효시켜 여러 가지를 넣어서 끓여 먹는다. 일본의 「낫토」는 우리 한국인들이 끓여 먹기 전의 상태로 콩을 발효시킨 것을 간장을 쳐서 따뜻한 밥에 얹어 먹는다. 이와 같이 콩을 발효시켜 먹는 것하고, 그 발효한 것을 끓여 먹는 것하고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다) 오조니(お雑煮)와 떡국

새해가 오면 정월 초하룻날에 「오조니」를 먹는다. 우리나라 떡국과 비슷하다. 오조니는 찹쌀로 만든 네모진 떡을 넣어서 끓인 것이고, 떡국은 맵쌀로 만든 떡가래를 만들어 먹기 좋게 썰어서 끓여 먹는 음식이다. 다른 것은 네모진 떡을 두서너 개 넣어서 끓인 찰떡국과, 떡가래를 얇게 썰어서 끓여 먹는 것의 차이이다. 그런데 일본의 찰떡은 크고 찰 저서 정초에 노인들이 먹다가 목에 걸려 죽는 예가 많다.

3. 한국어와 일본어의 발음상 문제점

가) 「ㄴ」과 「ㅇ」의 종성 발음 구별

종성 발음은 일본인들이 발음하기가 가장 어려운 발음이다. 그래서 발음 연습을 아래와 같은 말로 연습을 시킨다.

「간장 공장 공장장 된장 공장 공장장」
 ㄱ+ㅇ ㅇ+ㅇ ㅇ+ㅇ+ㅇ ㄴ+ㅇ ㅇ+ㅇ ㅇ+ㅇ+ㅇ

설음과 후음의 구별이 어렵고 연음으로 발음을 하면 아무래도 설음 발음으로 나와 버린다.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많은 연습을 되풀이해야 한다.

나) 격음의 발음

격음 「ㄷ, ㄱ, ㅌ, ㅍ」의 발음

「ㄷ」: 일본어의 「ㄷ」(茶) 행음에 가깝게 내는 음으로 유기음의 숨을 뱉아 내는 것 같이 격한 소리로 발음을 한다.

「ㄱ」: 일본어의 「ㄱ」 행의 음을 숨을 뱉듯이 격한 소리로 발음을 한다.

「ㅌ」: 일본어의 「ㄷ」 행의 음을 숨을 뱉듯이 격한 소리로 발음을 한다.

「ㅍ」: 일본어의 「ㅍ」 행의 음을 숨을 뱉듯이 격한 소리로 발음을 한다.

다) 경음의 발음

경음·농음(硬音·濃音)의 「ㄱ, ㄷ, ㅂ, ㅅ, ㅈ」 발음

「ㄱ」: 일본어 「ㄱ」 행의 음에 발음하기 전에 숨을 정지하는 것같이 발음을 한다.

「ㄷ」: 일본어 「ㄷ」 행의 음에 발음하기 전에 숨을 정지하는 것같이 발음을 한다.

「ㅂ」: 일본어 「ㅂ」 행의 음에 된소리로 발음한다.

「ㅅ」: 일본어 「ㅅ」 행의 음에 된소리로 발음한다.

「ㅈ」: 일본어 「ㄷ」 행의 음에 된소리로 발음한다.

4. 일본인이 한국어를 쉽게 배울 수 있는 점

가) 한자어의 발음이 한국어와 일본어가 같은 점

- (관 / 칸) : 官、冠、寬、關、觀、管、慣
(시 / 시) : 市、始、視、示、詩、試
(산 / 산) : 山、産、算、散、酸
(기 / 기, 키) : 氣、起、記、基、期、奇、企、旗、忌、器、機、騎
(대 / 타이) : 大、代、待、帶、貸、隊、台、對
(가 / 카) : 可、加、歌、架、伽
(비 / 히) : 妃、比、非、批、卑、秘、飛、費、悲、碑
(신 / 신) : 神、新、信、辛
(유 / 유) : 由、有、裕、誘、遊

나) 한국어와 일본어의 음이 비슷한 점(対応)

- (사 / 시) : 史、司、仕、四、死、私、使、思
(지 / 지) : 止、支、志、指、紙、誌
(하 / 카) : 下、何、河、夏、荷
(화 / 카) : 火、花、化、禍
(천 / 센) : 千、川、泉、賤
등등 많이 대조할 수 있다.

다) 한국어와 일본어의 유사어

기분 / きぶん (氣分)

엿보 / エクボ

쫄보 / ちゃんぽ
 뇨보 / のっぽ
 궤병 / けびょう
 잔치 / チャンチキ (祝宴)
 국 / コク (スープ)
 하나 / ハナ
 매 / メ
 총각 / チョング (未婚の男)
 다발 / たば (束)
 고을 / こおり

5. Life stage의 문화

가) 미각의 차이와 의복의 차이

한국인은 혀로 미각을 느낀다면, 중국인은 코로 미각을 느끼고 일본인은 눈으로 미각을 느끼는 것 같다.

한국인은 치마저고리, 일본인은 기모노, 중국인은 차이나 드레스를 입는다.

나) 미식(味食)의 습관

한국인은 섞어서 음식을 만드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비빔밥이나 김치가 좋은 예다. 중국인은 볶아서 먹는 것 같은 느낌이다. 일본인은 엮어서 먹는 것 같다.(돈부리, 스시) 동남아세아는 찌서 먹는 것 같고, 서양 사람

들은 끼워서 먹는 것 같다.(샌드위치)

다) 주거에서 온 문화의 차이

지역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주거에 차이가 있다. 온돌과 다다미의 차이도 있지만 신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벗고 들어간다.

일본은 지진에 잘 대비해서 집을 짓고 있기 때문에 벽이 얇고, 후스마로 가볍게 집을 짓는 경향이다.

6. 맺는 말

일본 지역의 한국어 교육은 고대에 있어서 도래인(渡来人)이 문화와 그에 따른 언어를 같이 가지고 가서 고대 일본어 속에 동화했기 때문에 한국어와 일본어의 동계론(同系論)의 형태면에 주목하면서 교육을 해야 한다.

아스카(飛鳥) 문화의 시작은 일본의 최고의 사원(寺院) 「飛鳥寺」를 빼놓고 말할 수는 없다. 이 절은 588년에 백제로부터 불사리(佛舍利)와 스님 6명과 사공인(寺工人) 2명, 상륜탑(相輪塔)을 만드는 노반(露盤) 박사 1명, 기와를 만드는 박사 4명, 그 외에 화공이 파견되었다고 니혼쇼키(日本書紀)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백제인의 기술로 아스카 절이 세워진 것이다. 이 시대만 해도 사상, 종교, 기술, 정치 등, 그 외에도 여러가지 면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아스카 문화는 도래인의 발자취라고 할 수 있다.

「아스카」라는 말도 아직 그 어원에 대해 확실한 정설이 없다. 「万葉集」의 권1-78에 기록된 「아스카(飛鳥)의 아스카(明日香)의 마을…」이란 귀

절이 있다. 이 「飛鳥」를 우리말의 음독과 훈독으로 풀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삼한시대의 소도(蘇塗)는 일본에 건너가 도리이(鳥居)가 된 것이라 본다.

고대의 한자 보급도 백제의 왕인(王仁) 박사의 「千字文」과 「論語」의 전래가 (日本書紀卷10應神天皇16年2月)있었다는 기록도 염두에 두고 한국어 교육과 문화의 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와 같이 일본과 한국은 고대의 도래인을 통한 역사와 지역환경이나 한자문화권 등으로 보아 비교문화적 견지에서 한국어 교육과 언어문화를 연결해서 교육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参考 文献

- 千田 稔・金子祐之 共編著 『飛鳥・藤原京の謎を掘る』 文英堂
鄭 大聲 『食文化の中の日本と朝鮮』 講談社現代新書
金 思燁 『古代朝鮮語と日本語』 明石書店
坂本太郎 外 日本古典文学大系 『日本書紀』 岩波書店
高柿之助 外 日本古典文学大系 『万葉集』 岩波書店
石井 敏 外 『異文化コミュニケーション』 有斐閣
池田理知子 外 『多文化社会と異文化コミュニケーション』 三修社
柳 尚熙・呉 英元 共著 『韓国語会話』 成美堂出版
柳 尚熙・呉 英元 共著 『やさしい코리아語入門』 評論社

■ Abstract

Korean Language Education and Language culture in Japan.

Yu, Sang-Hee

This paper aims to propose a way to educate Korean language and culture to Japanese learners. It draw up a general plan for Japanese learners to understand and accept the language and cultural difference between Japan and Korea.

For this, Part 1 focuses on present condition of ethnocentrism in Japan and a educational principle to remedy this state. Part 2 is an illustration for some examples of heterogeneity and homogeneity in relation of the food culture between two countries. Part 3 explains problems with pronunciation in Korean language for Japanese learners. Part 4 presents Korean language sections which are easy to learn for Japanese. Part 5 is about the cultural tendencies in Korean daily life.

This paper has an inter-cultural viewpoint for language and language culture education which can develop a desirable attitude in an acceptance of cultural differences for Japanese learners.

[Key word] Korean language and culture, language and cultural difference, heterogeneity and homogeneity, inter-cultural viewpoint